

2013. 01. 03

Economist

문정희 02) 3777-8092

mjhsilon@kbsec.co.kr

Macro Spot Issue

Contents

2013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012.12.27) — 2

2013년 주요 예산 내용 기획재정부 (2012.12.31) — 4

2013년 국내 경제정책방향 및 주요 예산 내용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 정부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이후 국회에서 2013년 예산안을 처리함에 따라 이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예산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정책방향으로는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공생발전 가속화 등이 제시되었고, 주요 예산 증액 내역으로는 복지예산 지출, 보육과 교육, 문화환경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시사하는 바는 2013년에도 2012년과 유사하게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이 시행될 것이며, 특히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 유도가 예상된다. 복지예산지출 등은 단기적 효과보다 중장기 효과가 기대되는데 소득의 안정과 소비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2013년 정부정책방향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정부정책방향'에서는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공생발전 가속화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고, 세부 정책 과제로는 거시건전성 점검 강화, 가계 부채 연착륙, 재정 조기집행, 민간투자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등이 포함되었다. 2013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3.0%이며, 2012년 2.1%에 비해 상향, 잠재성장 수준을 하회하겠지만 1분기 이후 완만한 성장률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2013년 주요 예산 내용

국회에서 2013년 예산안이 처리되었고, 정부의 총수입은 2012년보다 29조원이 증가한 372.6조원, 총지출은 16.6조원이 증가한 342조원으로 확정되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4.3%를 기록할 전망이며, 2012년에 비해 0.5%p 감소할 전망이다. 2013년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맞춤형 복지',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보육과 교육, 의료와 주택 등 복지 정책에 예산 증액이 평균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정부정책방향과 주요 예산 내용의 시사점

신정부 출범과 함께 2013년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이 발표되었고, 이후 2013년 예산안도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집행은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정부의 재정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1분기 정부지출 기여가 높아질 전망이며, SOC 사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정부의 투자 확대 정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복지 예산 지출이 증액됨에 따라 민간의 생활안정이 예상되고, 이는 민간 소득의 개선과 소비지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2013년 경제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012.12.27)>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지난 2012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며, 주요 내용은 ‘2012년 정책대응과 평가’, ‘향후 국내외 경제여건’, 그에 따른 ‘2013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정부의 정책대응은 리스크 관리와 경기대응 강화 등을 통해 대외 충격에 따른 경제둔화를 보완하고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에 역량을 집중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 평가는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고용 증가 및 물가 안정에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경기회복 모멘텀의 약화에 따른 민간의 자생력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노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3년에도 대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하방 리스크들이 잠재해있고, 내부적으로는 고용 개선과 물가안정 지속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3년 정부의 경제전망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의 약한 회복에 따라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완만한 수준에 그치겠으나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되면서 연간 3.0% 성장을 예상했다. 이에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2012년 2.1%에서 2013년 3.0%로 상향되었으며, 소비자물가는 2012년 2.2%에서 2013년 2.7%로 비교적 높은 물가상승압력을 예상하였다. 수출은 연간 4.3% 증가, 수입은 4.6% 증가를 예측하였고, 경상수지는 연간 300억 달러를 전망하여, 2012년 420억 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3년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 방향은 크게 세 줄기로 ‘거시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공생발전 가속화’ 등으로 책정되었으며, 주요 정책 과제로는 거시 건전성 점진 강화, 가계부채 연착륙, 재정조기집행, 민간투자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2012년에 정부정책과 다른 주요 내용은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에 대해 국내 은행 및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시킨다는 내용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경제활력 제고에 있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상반기에 재정집행 비율을 높일 것으로 밝혔으며, 이에 따르면 1분기에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신축 운영하고 다주택주 양도세 증가를 1년 유예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부담금 면제 및 입지규제 완화, 물류비 절감 등 기업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제도 확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및 고용창출 확대에 대한 정부정책도 포함되었다.

표 1. 2013년 경제정책 방향 및 과제, 세부 내용 (기획재정부, 2012.12.27)

정책 방향	정책 과제	세부 내용
I. 거시경제 안정	거시 건전성 점검 강화	- 거시·금융·외환 위험요인 정기 점검, 조기경보 시스템 개선, 상황별 대응계획 점검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 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국내은행 40 → 30%, 외은지점 200 → 150%) -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 확보, 은행 차입구조 개선, 외화예금 확대
	가계부채 연착륙	-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 - 은행별 고정금리 및 비거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확대 계획(2016년까지 30%) - 직불형 카드 사용 유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인하 (20 → 15%)
	전력수급 안정	- 절전 운동 전개, 피크시간대 전력수요 분산
II. 경제활력 제고	재정 조기집행	- 중앙 및 지방 모두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60% 설정, 연초부터 즉시 집행
	탄력적 재정운용	- 경기 상황을 감안한 탄력적 재정운용,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 강화
	주택시장 정상화	- 규제 합리화 및 시장 여건에 따른 주택공급 조정 -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신축 운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 -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1.5 → 2.5조원) - 임대 사업자 양도세 감면시 면적 제한 완화 (현행 149m ² 이하) 및 세제 지원
	민간투자 활성화	-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 - 2013년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2012년보다 16조원 증액, 총 186조원 공급 - 부담금 면제, 입지규제 완화, 물류비 절감 (공동물류 활성화) 등 기업부담 완화 - 보증연계형 투자 (100 → 500억원), 창업 맞춤형 사업화 (300 → 500억원) 지원 확대
III. 공생발전 가속화	서민생활 안정	-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가공식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요인 최소화, 농산물 수급안정, 교육물가 안정적 관리 - 알뜰 주유소 확대 등 석유시장 경쟁 촉진, - 중소기업 인턴 (4만 → 5만명),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8천개, 여성고용 안정을 위해 7,093억원 책정
	복지제도 내실화	- 누리과정 (보육, 유아교육)을 현행 5세에서 3, 4세까지 확대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확대 (6.15 → 7.65조원)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 중소기업 관리시스템 본격 시행, R&D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 - 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50%) 및 기간 연장 (4 → 5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 부당 하도급, 내부 거래 등 중소기업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자료: 기획재정부(2012.12.27), KB투자증권 정리

2013년 주요 예산 내용 <기획재정부 (2012.12.31)>

2013년 정부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342.5조원 대비 0.5조원 감소된 342.0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총수입 역시 정부안 373.1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한 372.6조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2012년 대비 세수는 29조원 증가 (8.5%), 세출은 16.6조원 (5.1%) 증가한 수준이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는 2012년 18.1조원에서 약 12.5조원 증가한 30.6조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는 GDP대비 마이너스 0.3% 수준으로 균형재정 수지에 해당하며, 국가채무는 총 464.6조원으로 GDP 대비 34.3%를 기록, 2012년 34.8%에 비해 0.5%p 감소할 전망이다.

표 2.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정부 예산안

	' 12년 (A)	' 13년		증 감		
		정부안 (B)	최종 (C)	(C-B)	(C-A)	%
총 수 입	343.5	373.1	372.6	△0.5	29.0	8.5
총 지 출	325.4	342.5	342.0	△0.5	16.6	5.1
통합재정수지	18.1	30.6	30.6	0.1	12.5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14.3 (△1.1)	△4.8 (△0.3)	△4.7 (△0.3)	0.1 (-)	9.6 (+0.8)	
국가채무 (GDP대비, %)	445.2 (34.8)*	464.8 (34.3)*	464.6 (34.3)	△0.2 (-)	19.4 (△0.5)	

자료: 기획재정부(2012.12.27), KB투자증권 정리

주: △ 감소분 혹은 마이너스 증가분 의미

2013년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제고’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맞춤형 복지’에 보육 및 교육, 의료, 주택, 계층별 지원 등이 포함되고, ‘일자리 확충’에 있어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 지급 등이 포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SOC 사업 증액 및 환경시설, 국제 체육대회 지원 등이 주요 증액 내역이며,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한 예산 증액도 포함되어 있다.

총 세출에 있어 보건과 복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등의 예산 지출이 전년대비 5% 이상 증액되었으며, SOC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5.2% 증액되었다. 한편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사업 지원은 전년대비 2.7%, 농림수산물과 일반 공공행정 등은 전년대비 1%대 증가에 그쳐 비교적 내년 예산 증액이 낮은 수준에 그쳤다.

표 3. 국회에서 확정된 2013년 예산안 주요 증액 내역

주요 증액 내역		세부 내역
I. 맞춤형 복지	보육	- 만 0~2세아 전 계층 보육료 및 만 0~5세아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23,913 → 25,982억원) / 양육수당 (1,026 → 8,810억원) -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101개소 추가 확대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 확대
	교육	국가장학금 규모 증액 (17,500 → 27,750억원) / 일반상환 학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2.9%)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안전망 보강 (1,071 → 1,095억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보증 1조원 추가 공급 (12.2 → 13.2조원)
	계층별 지원	노인, 장애인, 아동, 농어업인, 문화 및 예술인, 군인 및 국가유공자 지원
II. 일자리 확충	재정지원 일자리	직접 일자리 1.2만개 추가 창출 (60.1만명)
	사회보험료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13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연금 및 고용보험료 1/2 지원
	과학기술, 서비스업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225억원) 및 서비스 분야 창업 지원 (625억원) 확대
III. 지역경제 활성화	SOC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기간망 확충으로 3,710억원 증액 (24.3조원 집행)
	환경시설	하수도 투자 강화, 생태 하천복원 사업 확대
	국제 체육대회 지원	평창 스페셜 올림픽, 인천 아시안 게임, 인천 장애인 경기대회 지원 확대
IV. 국민안전 제고	환경	안전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개선 투자 확대
	학교 및 성폭력 예방	학교 및 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2012.12.31), KB투자증권 정리

표 4.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내역

구 분	' 12년	' 13년	' 13년	증 감		
	(A)	정부안 (B)	최종 (C)	(C-B)	(C-A)	(%)
				(C-B)	(C-A)	(%)
◇ 총 지 출	325.4	342.5	342.0	△0.5	16.6	5.1
1. 보건·복지·노동	92.6	97.1	97.4	0.3	4.8	5.2
(주택부문 제외시)	(73.6)	(79.6)	(79.9)	(0.3)	(6.3)	(8.6)
2. 교 육	45.5	49.1	49.8	0.7	4.3	9.4
(교육교부금 제외시)	(7.0)	(8.1)	(8.7)	(0.6)	(1.7)	(23.5)
3. 문화·체육·관광	4.6	4.8	5.0	0.2	0.5	9.9
4. 환 경	6.0	6.3	6.3	0.0	0.3	5.9
5. R&D	16.0	16.9	16.9	0.0	0.9	5.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7	15.5	△0.2	0.4	2.7
7. SOC	23.1	23.9	24.3	0.4	1.2	5.2
8. 농림·수산·식품	18.1	18.3	18.4	0.0	0.3	1.4
(4대강 제외시)	(16.7)	(18.1)	(18.1)	(-)	(1.4)	(8.1)
9. 국 방(일반회계)	33.0	34.6	34.3	△0.3	1.4	4.2
10. 외교·통일	3.9	4.1	4.1	△0.0	0.2	4.9
11. 공공질서·안전	14.5	15.0	15.0	0.0	0.5	3.5
12. 일반공공행정	55.1	57.3	55.8	△1.5	0.7	1.2
(교부세 제외시)	(22.1)	(21.8)	(20.3)	(△1.5)	(△1.8)	(△8.3)
※ 지방재정지원	-	1.3	1.7	0.4	1.7	순증

자료: 기획재정부(2012.12.31), KB투자증권 정리

국민의 내일에 투자합니다

 KB 투자증권

 본사 및 지점망

고객지원센터 1599-7000 / 1544-6000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17, 21, 22, 23F	02) 3777-8000
울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1 울촌빌딩 2, 4, 5F	
압구정 PB 센터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7-3 LG패션 서관 3층	02) 2096-3004
도곡 PB 센터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67-14 삼성엔지니어링 빌딩 1층	02) 2096-3014
잠실 중앙지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번지 갤러리아팰리스 2층	02) 2096-3024
서현역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8-5 코코빌딩 2층	031) 8017-8614
목동 PB 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16 KB국민은행 빌딩 2층	02) 2096-3044
여의도지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KB국민은행 영업부 내	02) 2096-3054
강남스타PB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 1동 GFC빌딩 21층	02) 2096-3064
명동스타PB센터	서울시 중구 수하동 센터원빌딩 서관 32층	02) 2096-3074
무역센터지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향타워 2층	02) 2096-3084
평촌지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1-1 국민은행빌딩 3층	031) 476-8145

현재 당사는 상회사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기관 투자자에게 사전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KB투자증권(주)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KB투자증권(주)의 고객에게만 배포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전재, 재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